



제 2018-121호

중국

바이두,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사진저작권 보호 서비스 '바이두 투텅' 제공

북경사무소

■ 현황

- 중국 최대 검색사이트인 '바이두'가 지난 7월 18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오리지널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서비스인 '투텅(图腾)'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힘

■ 주요내용

- 최근 중국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영역인 블록체인,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,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부쩍 많아지고 있음
- 이제 막 서비스가 개시된 '투텅'은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, 바이두 자체의 검색 플랫폼 및 제3자 협력을 통한 하나의 오리지널 사진작품 생태계임. 동 플랫폼을 통하여 사진 제작, 권리인증, 사진발송, 저작권 거래, 권리침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권리보호가 상호 결합된 저작권 서비스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



- 알려진 바에 따르면, '바이두 투탕'은 블록체인, 인공지능, 빅데이터의 핵심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,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저작권 인증시스템을 구축했으며, 이를 통하여 콘텐츠 제작과 거래 등의 시간을 명시적으로 표기할 수 있음. 또한 다수의 사진 저작권기구가 참여함으로써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권한부여 여부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도 있음.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은 권리보호에도 활용되는데, 동 시스템은 권리 침해행위를 발견한 후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상 증거확보 이후 블록에 저장하게 됨
-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저작권 감시시스템을 구축했는데, 바이두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동 시스템은 이미 온라인상 존재하는 1억장 이상의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, 식별율은 99%를 넘어서며, 1만장의 사진에 대하여 2시간 이내에 저작권감시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음
- 나아가 '바이두 투탕'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콘텐츠를 소개 및 제공하고 나아가 콘텐츠의 가치를 현금화하는 역할도 함. 특히 바이두 검색의 플랫폼 영향력을 통하여 '바이두 투탕'은 오리지널 사진이 바이두 이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게 하여 더욱 많은 잠재적 거래 기회를 권리자에게 가져다 줌
- '바이두 투탕'은 향후 사진뿐만 아니라, 문자·동영상·음악 등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방 및 확대할 예정임

■ 출처

- 소후망(搜狐网)
- http://www.sohu.com/a/241987091_114877
- 봉황망(凤凰网)
- http://tech.ifeng.com/a/20180718/45069415_0.shtml